

분화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혈청 항갑상선글로불린 항체 상승의 임상적 의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의학교실, 내과학교실
정준기*, 소영, 홍미경, 정재민, 이동수, 이명철, 조보연

분화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혈청 갑상선글로불린(thyroglobulin; Tg) 측정법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혈청에 항갑상선글로불린 항체(anti-thyroglobulin antibody; anti-Tg Ab)가 있는 경우 암의 재발이 있어도 Tg 치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갑상선절제 후 혈중 Tg가 음성이라면 anti-Tg Ab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분화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화성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중 Tg와 anti-Tg Ab를 면역방사계수측정 키트(Sorin HTGK-2와 Brahms HENNINGtest anti-Tg)로 측정하고, 암의 재발 유무를 조직병리검사, I-131전신스캔, PET, 초음파검사, CT 등으로 확인하였다. 결과: 33명(21%)에서 혈중 Tg은 음성이면서 anti-Tg Ab는 지속적으로 양성이었고 이중 25명에서 암의 재발 유무를 판정할 수 있었다. 19명(76%)에서 재발이 있었고 6명(24%)에서 재발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재발이 있는 환자에서 혈중 anti-Tg Ab 치가 재발이 없는 환자에서 보다 높았다(1751 ± 2743 U/ml vs 562 ± 862 U/ml). 3명의 환자에서 재발암 치료 후 혈중 anti-Tg Ab 치가 감소하였다. 재발이 있는 환자에서 혈중내 Tg/anti-Tg Ab 복합체는 찾을 수 없었지만 15명(79%)에서 I-131전신스캔상 방사능의 간 섭취 소견을 보였고 크로마토그라피 분석에서 I-131표지 Tg 분획이 증가되어 있었다. 결론: 분화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절제술 후 혈중 anti-Tg Ab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으면 암의 재발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재발암을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갑상선암 환자를 경과관찰시 Tg과 마찬가지로 anti-Tg Ab도 측정하여 수치의 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여야 한다.

유방암 환자의 액와림프절 전이 평가: 유방립프신티그라피를 이용한 Sentinel 림프절 생검의 유용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학의학교실, 일반외과학교실¹

윤준기*, 박정미, 최준영, 이경한, 김상은, 최용, 최연성, 양정현¹, 김병태

배경 : 유방암 환자에서 액와림프절의 전이 유무는 종양의 병기, 보조항암치료 여부의 결정 및 예후판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액와림프절 절제는 유방암 수술의 기본 술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진단으로 액와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유방암 환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액와림프절 절제는 림프부종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 저자들은 불필요한 액와림프절 절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방립프신티그라피 소견으로 시행된 sentinel 림프절 생검 결과의 정확도를 액와림프절 생검 결과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원격전이의 증거가 없고 이학적 검사상 림프절이 만져지지 않았던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3~4시간 전에 18.5 MBq의 Tc-99m antimony sulfide colloid를 종괴주위 3곳(위, 아래, 외측)에 나누어 피내주사하고 간헐적으로 종괴주위를 마사지한 후 2~3 시간 후에 유방과 액와의 영상을 얻었다. 수술중 Neoprobe를 사용하여 sentinel 림프절을 찾아 절제하였으며 액와림프절 절제를 시행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군의 임상병기는 T1-T2, N0, M0였고 침습성관암(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16명), 상피내관암(Ductal Carcinoma In Situ; 2명), 상피내소엽암(Lobular Carcinoma In Situ; 1명)였다. 전체 환자 중 36.8%인 7명에서 액와림프절 전이가 있었으며 그 중 6명의 환자에서 sentinel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예민도: 85.7%). 나머지 63.2%인 12명에서는 액와림프절 전이가 없었으며 이 중 8명에서 sentinel 림프절 전이가 없었다(특이도: 66.7%).

결론 : 유방립프신티그라피를 이용한 sentinel 림프절 생검은 액와림프절 전이의 평가에 있어서 높은 예민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는 유방암 환자에서 불필요한 액와림프절 절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